

리뷰 에세이

인류세 담론은 누구에게 열려있는가? 지구적 위험과 인식론의 갈등

이인건*

*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전자우편: catshowers@gmail.com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서울: 이상북스.

인류세란 개념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아직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다. 그렇다고 하여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인류세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인류세란 용어가 생소할지라도, 자신의 연구주제와 인류세의 접점을 잘 설명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인류세와 항공안전체계를, 다른 누군가는 인류세와 정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식이다. 개별 주제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으나 혼란이나 오해도 생기지 않는다. 학자들 간에 개념을 둘러싼 갈등이 생긴다면 그들의 주제가 서로 연결점을 찾기 시작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드러났다는 뜻일 것이다.

인류세의 개념은 복잡한 여러 현상을 망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한다. 인류세는 생물학자인 유진 스토머(Eugene Stoermer)가 처음 제안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대기과학자 폴 크루첸(Paul Crutzen)가 다듬어 널리 퍼트린 용어로, 지질의 상태와 변화과정에 인간이 명백히 영향을 끼쳤음을 나타낸다. 이 정의는 여러 환경의 문제와 그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복잡함을 내포한다. 식민지화, 산업화와 도시화 같은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현상부터 지구온난화와 대기, 토양, 해양 및 생물종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이런 특성을 포착한 다양한 학제적 배경의 학자들은 인류세에 관하여 환경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문학과 정책, 사회과학의 연구를 한다.

이에 반해, 『인류세』의 저자 클라이브 해밀턴은 일관적인 인식론을 만들고자 한다. 그는 『인류세』에서 인류세의 시대에 적합한 인식론적 입장이 필요하다는 “신인간중심주의(new anthropocentrism)”를 제안한다. 해밀턴에 따르면 인간은 지질에 변화를 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 인간은 이 힘을 단일한 개체로서의 인간들의 집합, 즉 해밀턴이 부르는 ‘인류’만을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이 성장한 만큼 지구도 그 영향력을 키워왔으므로 인간의 자유가 자연에 매여 있어, 자연이 곧 인류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힘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연의 지배적 개체로서 그들이 속한 지구 시스템을 돌보아야 한다.

인식론적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 해밀턴은 신인간중심주의의 과학적 배경을 비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지구 시스템 과학’은 해밀턴이 과학적 배경으로 채택한 시스템 과학의 지구과학 응용 분과이다. 해밀턴에 따르면 1970년대에 자원 관리에 시스템 모델링을 도입한 시도에서 발생한 지구 시스템 과학은 이후 모델링을 통해 지형, 생태 및 환경과 우주를 총체적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지구 시스템의 개념은 기후, 지형, 생태계 등을 별개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던 기존 지구 과학과 다르게 모든 개별 대상을 하나로 엮어냈고 인간이 지구 전체에 가한 변화와 영향력을 가늠할 때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해밀턴은 지구 시스템 과학이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33쪽). 패러다임의 여부는 좀 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나, 해밀턴은 ‘가이아 이론’이 주창되거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비롯한 국제 협약이 생기고 이행되는 현상도 시스템 과학의 사유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인류세의 개념도 지구 시스템 과학적 사유를 따라서 나타났다고 거듭 강조한다(30쪽).

지구 시스템 과학을 근거로 해밀턴은 인류세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지질학과 생태, 토양 및 기후 과학 같은 전통 있는 학제적 배경이 있는 학문도 인류세에 대한 혼동을 만들 수 있다.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의 연구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하는 반면, 해당 학문들은 인간이 남긴 지질학적 영향을 국지적으로 파악하여 총체적 시스템으로서의 지구를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먼저 과학부터 살펴보자”고 제안하는 해밀턴이 말하는 지구 시스템 과학적 근거란 흔히 알려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주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17-19쪽). 그는 산업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산업발전으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킨 인간이 지구와 그 기후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는 환경문제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지해온 과학적 근거이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를 부인하며 정치적 행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이다. 해밀턴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반론에 허술함을 드러내고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구 과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1945년에 폭발한 원자폭탄이 지층에 흔적을 남겼고 이를 인간이 인식과 행동을 전환할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그에게 인류세란 인간이 주도한 지질학적 변화의 표시이고 기후변화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의 결과이다.

인류세의 담론을 과학적 논쟁으로 한정하여 보면 해밀턴의 지구 시스템 기준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의 참여를 제한한다. 해밀

턴은 진행 중인 과학적 논쟁에 관해 생태학을 비롯한 여타 학문 보다는 지구 시스템 과학의 해석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여 인류세가 “오독, 오해, 이념적 포섭에 휩싸여 오도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28쪽). 그러나 인간의 지질학적 변화 주도 여부는 국제층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의 인류세워킹그룹(Anthropocene Working Group)에서 논의 중이다. 그룹은 2018년 12월 말, 인류세를 지질시대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 층서구역 후보 탐색을 시작했다.

해밀턴은 정치 조직 및 인문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에게 인류세 논쟁에서 한정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해밀턴은 인류세란 명칭의 적실성을 비판한 사회과학자들을 가리키며 “이름에 내포된 함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만 그들의 역할은 새로운 지질시대가 촉발한 힘들을 분석”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5쪽). 첫째 비판 대상은 에코모더니스트(ecomodernist)들이다. 이들은 주류 경제 및 정치 체제의 세계관으로 기후변화를 해석한다. 에코모더니스트들은 브레이크스루 인스티튜트(Break-through Institute)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구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기후를 통제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밀턴은 인스티튜트의 배후를 보수 정치인들과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추측한다(48쪽). 해밀턴은 에코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을 예시로 들어 인류세의 시대에 들어 인류는 지구 시스템의 교란이 빚어내는 균열뿐 아니라 인간 역사의 균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을 지구의 중심으로 두고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은 기존 체제의 미래 전망을 공고히 한다고 비판한다. 해밀턴은 자신이 기술에 반대하지 않지만, 기술이 정치 경제계에 지배적인

역할을 할 위험성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두 번째 비판 대상은 그가 사회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요소에 집중하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학자들이다. 포스트휴머니즘 학자들은 근대성을 성찰하여 인간 중심의 존재론에 다양성을 더해 비인간존재와 비서구의 존재론을 격상시켰다(140-141쪽). 그 결과 포스트자연주의적 인류학, 페미니즘 이론, 생태철학,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학문이 권력의 해체와 통제에 대한 비판을 제공했으나 해밀턴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중요성과 힘을 지구상에서 축소”하는 인식론이라고 평가한다(146쪽). 해밀턴은 이처럼 존재론 내에 다양성이 생겨서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나 애나 칭(Anna Tsing)처럼 “인간의 위상을 격하시키거나”(151쪽) “인간을 박테리아보다 낮은 위치에”(156쪽)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

해밀턴의 비판은 인류세와 같이 느슨한 정의를 지닌 유행어(buzzword)의 특성과는 대조적이다. 유행어는 관련된 현상에 확고한 정의나 일관된 인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논의에 참여한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 다른 정의를 내려 논쟁을 만든다. 이때 유행어는 다양한 입장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는 효용성을 갖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중의 과학 참여(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나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을 언급하며 이러한 유행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용어에 느슨한 정의를 유지한 채 여러 해석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행어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상상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유행어의 위상이 달라져 용어의 장기적인 쓰임새를 갖는다. 대중의 과학

참여나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개발의 경우,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이해당사자들, 대중과 사회 내의 소수 그룹이 정책 결정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이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경우, 실제 기술이 개발되기 전부터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용어를 회자하며 이미지를 만들었고 결국 기술의 실현까지 이를 활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용어는 맞춤 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사례처럼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용어를 전유하여 논의를 은폐하고 관련된 기술에 관한 투기를 부추기기도 한다.¹⁾

해밀턴의 우려와는 달리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인류세가 단순히 유행으로 떠올라 기후변화에 내포된 지구 시스템 안의 복잡한 관계가 은폐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인류세라는 말은 문제의 주체를 인류 전체로 추상화시켜 기후변화의 지정학적 맥락이나 산업자본주의의 환경 영향을 가릴 것을 우려한다. 반면 해밀턴은 지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자는 제안 아래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사례(61-62 쪽)를 가져온다. 기후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반구에만 한정되

1) Bensaude-Vincent (2014)는 유행어(buzzwords)의 다양한 기능을 밝힌다. 녹색 화학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례를 정리하여 이러한 용어가 사회와 정책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고자 대중의 과학 참여를 사례로 삼아 유행어의 활발한 사용이 만드는 기술과학적 영향에 대해 논한다. Ribeiro, Smith와 Millar (2017)는 Bensaude-Vincent의 논의를 이어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해당 용어에 대해 학계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용어가 윤리 및 정치적 사안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bettan (2016)은 유행어의 부작용을 맞춤 의학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관련하여 Cairns와 Krzywoszynska (2016)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the water-energy-food nexus)의 사례를 통해 해당 용어의 정책 논의와 연구개발 촉발 효과를 다루지만, 이러한 연구개발이 일부 산업계에 편향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Industrie 4.0처럼 용어가 확산될 때부터 해석의 폭이 한정적이고 정치적인 용도를 지닌 예도 있다. 이를 사용하는 산업계 및 정계의 관계자들은 정책 전반에 확고히 그들의 의도를 투영하려 시도한다(Pfeiffer 2017).

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64쪽)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후발주자 국가의 개발은 분명 경제적으로 더욱 개발된 국가와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탄소배출을 만드는 생산에 연루되어 있어서 연대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다른 맥락에 있다. 자원의 추출, 상품의 생산과 폐기물의 처분에 있어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의 지질학적 영향이란 각 인간이 처한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성격을 지녀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인류 개념의 추상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지구 시스템과 단일 개체로서의 인간들, 즉 지구와 인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와 지구 시스템이 서로 조응하는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를 정의하려 한다. 인류와 지구는 마치 “이중 행성”과 같은 관계에 있어서, 한 행성, 곧 인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한 행성, 지구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들은 단일 개체로서의 인류가 되어 “새로운 유형의 지구에서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87-88쪽). 이 행위자는 지구에 매여 있다. 그에 따르면 인류가 할 일은 지구에 대한 지배권이 없음을 인식하고 인류세 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근대의 주체와 달리 인류세의 인류는 자연에 묶여서 인류가 지닌 힘에 대해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한다(93쪽). 인간은 자유롭게 지구에서 행동할 수 없으며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인류와 지구의 조응 관계를 주장하는 해밀턴은 인류를 지구의 중심 행위자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이지 못한다. 해밀턴은 인류의 중심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지배적 동물임을 보이려

한다. 정의를 제시하기보다, 이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기 위해 지구에 서식하는 전체 척추동물의 총 질량 중 인간과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야생동물보다 크다는 계산을 언급한다(76쪽). 여전히 척추동물의 질량 비중으로 인간의 지구 지배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지구 시스템과 인류의 조응 관계는 신인간중심주의와 해밀턴이 비판하는 다른 인간중심주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제 인류는 지구를 돌보지 않으면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그는 “규범적 주장으로서의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지상주의”를 언급하여 전자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갖는 것이며 후자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밀턴은 두 입장에 맞서 인간이 이제까지 강력한 능력을 지닌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현재까지의 인간중심주의는 합당한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78-79쪽).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높여 지질시대의 변화를 촉발했지만, 이러한 힘을 갖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지구 시스템에 인간의 책임감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해밀턴은 강력한 능력을 지닌 인간이 자연이 지닌 불확실함으로 인해 통제가 어렵거나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 지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한다. “인간은 더 강해졌다. 자연도 더욱 강해졌다”(82쪽).

지구 시스템과 인류의 조응 관계는 몇 가지 개념적 혼란을 만든다. 해밀턴의 주장은 정말로 자연과 인류의 지위가 동등하다

고 귀결되는가? 신인간중심주의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밀턴이 포스트휴머니즘을 비판하는 주된 요지는 이러한 사조가 인간의 지위를 자연보다 낮춰버린다는 것이다. 근대는 인간을 지배적 동물로 만들어 인간을 지구에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근대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자연의 증대를 강조했으나 인간의 중요성을 지구에서 약화시키도록 해석한다. 따라서 인간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이해는 그가 주장하는 지구 시스템에 매여 책임감을 갖는 인간의 행위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지위는 지구 환경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았으며 동시에 지구 시스템과 인간의 관계가 이중 행성처럼 불가분해 놓여 있다면, 신인간중심주의에서 인간과 지구는 최소한 근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구 시스템과 인류가 동등하거나 근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해밀턴은 인류에게 지구 시스템보다 더 많은 제약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인류가 먼저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인류는 지구 시스템에 매여 있으므로 인류의 지구 지배나 자비롭게 인류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지구의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류가 지구를 먼저 돌보아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인류와 지구 시스템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해밀턴은 과거의 인류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류가 지구 시스템에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영향을 받는 상태는 해밀턴이 말한 한쪽이 사라지면 남은 상대방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중 행성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해밀턴의 표현처럼 지구 시스템의 강력한 힘과 인간의 강력한 힘이 서로 부딪치고 있지만, 인류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한계를 정하는 지구 시스템에 달린 문제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밀턴은 인간이 없는 지구는 아무 의미 없이 우주에 남겨진 별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지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구를 고유한 행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소멸이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오류”로 간주한다(182-183쪽). 무리한 가정을 통해 만약 “외계 문명이 우주의 역사를 쓰면 지구는 인간의 행성”이라고 부연한다(184쪽). 그러나 이러한 의미부여는 여전히 해밀턴이 말하는 인류의 측면에서 지구에 부여되는 일방적인 해석이다. 해밀턴은 해러웨이나 칭과 같은 학자들이 인간을 미생물보다 낮은 위치에 넣거나 과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비판하지만, 해밀턴의 논리 또한 인류를 지구 시스템에 대해 낮은 위치에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두 번째 혼란은 개념에 기인한다. 해밀턴은 인류를 단일 개체 혹은 지배적 동물로 표현하여 생물학적인 혼란을 만든다. 해밀턴이 주장하는 단일 개체로서의 인류와 그가 비판하는 종으로서의 인류는 어떻게 다른가? 디페쉬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는 인류세를 사회 구조의 문제보다 종의 문제로 생각한다. 해밀턴은 종의 문제로 인류세를 다루면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를 누락하여 논의를 협소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인류가 마치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직면하여 진화하는 종처럼 보일 것을 우려한다. 다른 한편 인류세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처한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해밀턴은 탄소배출량의 저감에 대한 일부 활동가들의

노력을 강조한다. 반면 “대중이 자본을 가진 패권국가에 협력”하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거짓말을 기꺼이 믿은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102-103쪽).

신인간중심주의가 지구 시스템과 인류의 관계를 동등하게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순과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두 대칭적 존재의 이분법을 통해 해밀턴은 과감히 근대성을 재발견하려고 한다. 해밀턴은 인류세 시대에 근대적 이원론이 재확인되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신인간중심주의는 단일한 과학적 정의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류세 담론의 생산에서 엄격한 기준을 활용해 지질학적 변화를 둘러싼 현상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요청한다. 이 해석은 인류와 지구 시스템의 관계를 서로 간섭하고 있으며 서로를 크게 위협할 힘을 가지고 있으나 인류는 지구에 얽여 있는 상태이며 이 시스템을 더욱 돌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류와 지구 시스템이라는 이분법을 유지하고자, 포스트휴머니즘처럼 그 경계를 허물거나 에코모더니즘처럼 인류의 지배를 공고히 하지 않는다.

근대성을 재발견하려는 의도에 맞춰 이후 해밀턴은 근대 철학을 성찰하는 작업을 제안한다. 해밀턴은 인류세 시대의 인간이 존재론적인 전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철학을 시작하기 위해 칸트와 셸링의 철학을 비교하여 신인간중심주의가 셸링의 철학과 유사한 점을 설명한다. 칸트의 자유 개념은 인간 주체가 이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해밀턴은 인류세 시대의 자유는 프리드리히 셸링의 사상을 언급하여 인간의 “자유가 자연의 구조에 얽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밀턴에 따르면, 칸트의 철학은 세계를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으로 명료하게 구분하여 인

간은 세계와 구분된, 고립된 자아로 근대를 살았다고 해석한다. 반면 셸링은 주체가 성숙함에 따라 자연에 수렴한다고 해석한다. 인간은 환경과 완전한 유대를 맺으며 얽혀 살아가는 동시에 세계가 인간에 반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칸트철학에 의거한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인간에게 필요한 인식은 지구 시스템이 지닌 “창발성(emergent properties)”, 곧 자연의 자발적인 창조활동을 인정하고 자연 활동을 촉진하는 원인이 지구 시스템의 개별적인 요소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218, 222쪽). 그러한 인식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자연이 가하는 영구적인 한계를 파악하고 자유의 가능성을 자연 안에서 찾는다.

해밀턴의 신인간중심주의가 근대성으로 결론지어진 것은 인류세 담론을 형성하는데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첫째, 해밀턴은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흔히 벌어지는 혁신 및 진보에 맞선 자연보호라는 논쟁 구도를 피하려고 한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두 입장을 모두 비판하며, 과거 인간의 자연 파괴를 인정하고 미래에는 힘의 남용을 염려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을 채택하되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을 유지한다. 그리하여 이분법 내에서 대립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다. 그는 학술적 논의에서는 쉽사리 활용하기 어려운 용어들, 인간, 역사, 인류, 강력한 능력 등의 추상적인 용어를 과감히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 어찌면 학술적 용어보다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줄지도 모른다. 이런 용어를 통해 해밀턴은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들에게 윤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외적인 동기를 부여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환경파괴를 유발한 힘


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지구 시스템을 보전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갖고 힘을 쓰는 것이 책임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해밀턴은 대중의 역할을 축소하며 사회 전반의 책임감보다는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개발국의 기업과 정부 및 정치인들의 책임감을 강조한다. 해밀턴이 말하는 인류의 강력한 힘이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 소수의 의사 결정자들이 갖고 있다.

해밀턴의 논리는 전략적인 기능을 갖는 것 같다. 해밀턴의 주장을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은 그들의 힘을 통해 도덕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향후 인류세 논의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해밀턴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책에 나온 점을 토대로 추측하면 해밀턴이 염두에 두는 것은 기후변화를 교란하는 증거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인류세를 신기술을 발현할 기회로 여기는 정치적 움직임이다. 한국과는 달리 대중도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에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따라서 해밀턴은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묻고 회복과 복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영향력을 가진 기업과 국가의 소수 의사 결정자들로 하여금 보존과 유지에 집중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보존과 유지를 이행하기 위해 논하게 될 정책 사안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소수 의사 결정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를 제공한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뿐 아니라 개발행위가 자연에 함께 엮인다. 해밀턴의 주장은 인간과 자연의 수렴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가 자연에 엮여 있다고 하지만, 나아가 인간이 자연을 잘 돌본 결과 자연의 풍요가 허락하는 한계가 확장되면 인간 또한 다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해밀턴은 신인간중심주의에서 근대성을 재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단일성과 다양성의 대립구도를 가져와 그가 말하는 인류가 인식론적 단일성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은 정말로 해밀턴의 인류세 시대에 부적합할까? 존재론의 지위를 밝혀내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구들은 여전히 기후변화가 만드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해밀턴의 표현을 빌려오면, 생태학과 인류학,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은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미시 수준의 관찰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 이러한 학문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일련의 정책과 시행 과정을 추적하여 평가하고 기획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부작용의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신인간중심주의는 기후변화를 막고 이를 지연시키며 점차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독창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해밀턴의 선택을 한국에서 읽는 것은 인류세 담론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직 한국에서는 인류세의 개념이 활발하게 회자되고 있지 않다. 만약 인류세라는 말을 유행어 이상으로 사유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현상에 깊고 깊이 있게 관계하기 위해서는 인류세의 담론에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공존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내 해밀턴의 우려와 오류를 동시에 허용할지도 모른다. 기술결정론이나 과학을 자의적인 근거로 인용하는 권위적인 인식론도 나타날 수 있다. 혹은 해밀턴의 전략이 오용되어 기후변화의 책임을 회피하던 이들의 도덕적 지위만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소모하는 일 없이, 한국에서 깊이 있고 긴 고민을 담아 환경과 과학



기술의 정책에 이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혹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후 한국에서의 인류세 연구가 흥미로워질 대목 중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 Abettan, C. (2016) ‘Between hype and hope: What is really at stake with personalized medicine?’,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Springer, 19(3), pp. 423-430.
- Bensaude-Vincent, B. (2014) ‘The politics of buzzwords at the interface of technoscience, market and society: The case of “public engagement in scienc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3(3), pp. 238-253.
- Cairns, R. and Krzywoszynska, A. (2016) ‘Anatomy of a buzzword: The emergence of “the water-energy-food nexus” in UK natural resource debate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Elsevier, 64, pp. 164-170.
- Hamilton, C. (2017) *Defiant earth: the fate of humans in the Anthropocene*. John Wiley & Sons.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서울: 이상박스.
- Pfeiffer, S. (2017) ‘The Vision of “Industrie 4.0” in the Making—a Case of Future Told, Tamed, and Traded’, *NanoEthics*. NanoEthics, 11(1), pp. 107-121.
- Ribeiro, B. E., Smith, R. D. J. and Millar, K. (2017) ‘A mobilising concept? Unpacking academic representations of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Springer, 23(1), pp. 81-103.

- 
- Working Group on the Anthropocene. (2018, 12). Newsletter of the Anthropocene Working Group. Retrieved from <http://quaternary.stratigraphy.org/wp-content/uploads/2018/12/Anthropocene-Working-Group-Newsletter-Vol-8.pdf>